



高分子學會,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김 원 택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高分子科學·技術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학술문화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 설립된 高分子學會는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거듭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間, 정부는 물론, 산업계의 협조와 회원 여러분의 진력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천연자원이 결핍된 중, 자원과 에너지문제 등, 난제가 산적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남북대치하에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생활 및 국방력의 향상이라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科學技術振興을 통한, 科學技術立國이라는 중책을 우리의 양전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高分子科學·工業의 바탕이 되는 石油化學工業은, 1972년도에, 울산 석유화학 단지가 완공됨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규모는 에틸렌 생산능력기준으로 불과 10만 톤이었습니다. 한편, 현재의 생산능력은 약 400만 톤이 넘을 만큼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생산규모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발행 : “石油化學” 1996년, 4월호)

이와 같은 원료공급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범용 高分子 生産(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도료용 수지, 접착제, 인조피혁 등)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많은 수의, 고부가가치의, 고성능/고기능성 고분자 류의 개발 및 생산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성장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실상을 보여 주는 한 예로서, 국내석유화학 관련 연구소 운영 현황(1994년 말 기준)은 기업체의 연구인력 對 종업원수 비는 평균 5.83(종업원 100)이고, 연구개발비 對 매출액 비율(%)은 평균 1.69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웃 日本(1995년)의 두 기업체를 예로 할 때 연구인력 對 종업원수 비는 三井石油化學(株)이 15(종업원 100), 昭和電公(株)이 29이며, 연구개발비 對 매출액 비(%)는 三井石油가 7.4, 昭和電公이 2.9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큰 차로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종업원수 및 매출금액의 큰 차로 볼 때 실질적인 격차는 대단히 큼니다).

위와 같은 열악한 조건하에 있었지만, 그 間의 高分子學會의 발전상을 돌이켜 보면, 다음 몇 가지 통계로 볼 때, 가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 항목	회원수(명)	증가비	예산액(원)	증액비	폴리머 게재 발표논문수(편)	증가비
1977	180	1	13,220,000	1	26	1
1996	3000	16.6	247,800,000	18.7	126	4.46

연도 \ 항목	총회참가인원(명)	증가비	발표논문수(편)	증가비
1977(총계)	230	1	22	1
1996(총계)	700	3	271	12.3

본인은 1982년 5월에 日本高分子學會 設立 30주년 기념총회에, 韓國高分子學會長으로서 초빙되어 참석한 바가 있음

니다. 그때, 그들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각종 기념행사를 보고 부러움을 느꼈으며 마음속으로, 10년후의 우리의 30주년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에 두고 새로운 혁신기술이 기대되는 이때, 10년후의 우리의 30주년기념이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하고도 자랑스런 뜻있는 해가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게, 능히 이룩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첫째로, 高分子를 널리 보급화하는 한편, 젊고 유능한 인재를 국내외적으로 개발육성하고, 둘째로, 產·學·官民의 物心 양면에 걸친 긴밀한 협력하에 기초과학 및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며, 셋째로, 회원의 교류활동을 국제화하는 등의 계획성있는 대책이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